

## 【 해외금융뉴스: 유럽 】

## 영국 보험업계, 2010년 보험금 지급 급증 예상

□ Fitch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영국 보험산업의 내년도 최대 이슈는 보험금 지급의 급격한 증가가 될 것이며, 이에 따라 보험사의 수익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함.

- 과거 통계로 볼 때, 경기 활황기에는 번거로움 때문에 쉽게 포기했던 소액의 보험금지급 요청도 불황기에는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
- 다만, 현재의 보험금 지급이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은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과 신용 할당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 요청이 당장 드러나지 않을 뿐이라고 분석

□ 영국 손보업계는 현재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직까지는 보험금 지급이 뚜렷한 증가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, 내년부터는 경기악화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요청 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.

- Aviva손보사와 RSA손보사 등은 매출감소와 자산가격 하락에 따라 정리해고 및 영업소 철폐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남.
- 자동차보험의 경우 경기악화로 인해 차량사고 발생시 무사고할인\* 혜택을 누리기 보다는 보험 처리로 당장의 손실을 보전하려는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.
- 영국보험협회는 최근 2008년 영국의 보험사기 규모는 경기악화 여파로 전년대비 30% 증가한 약 7억 3천만 파운드에 달한다고 발표함.

\* 영국은 대부분 보험사고에 대한 할증이 없고 무사고할인제도(NCB: No Claim Benefits)만 존재하는데, 이는 기본보험료 수준 자체가 이미 이를 감안하여 산정되었기 때문에 초년도의 할인을 0%는 사실상 할증률이라 볼 수 있음. 보험계약 기준으로 관리되는 NCB는 무사고 연수가 길어질수록 할인율이 커지며 대략 4~5년의 무사고 경우 60%의 할인율을 적용받음.

□ 영국 생보업계는 1996년 이후 최고조에 달한 실업률과 가중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내년도 보험계약 해약으로 인한 해약금 지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.

- 영국통계청은 전체 실업자를 약 2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, 올해 말까지 매달 약 10만명이 실직할 것이라고 예상함.

(Bloomberg 6/2)